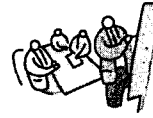


ue:0.01)와 이 다형성의 AA genotype를 기준 하였을 경우 GG genotype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odds ratio를 나타내었다(OR: 3.87, 95% CI: 1.01-14.82). Allele별로 환자 대조군을 비교하여 보면 MSX1의 1170G/A의 경우 minor allele인 A allele에 비하여 major allele인 G allele이 1.97의 비차비를 보였다(95% CI= 1.13-3.44).

결론: MSX1의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총 14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SNP)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이미 발표된 5개를 제외한 9개의 SNP는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변이였고 연구에 포함된 총 7개의 SNP 중 두 번째 exon의 1170G/A에서 질병과의 associ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순 구개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MSX1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운 다형성 중심으로 하여 생화학적 규명, 다른 인종에서의 비교, 환경 인자와의 상호 작용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eloping cervical cancer, and in particular for an early onset of cervical carcinogenesis.



역학 4. 영양/흡연/대사증후군/골밀도

KSPM-94

한국여성의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및 인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 Study for Factors Influencing Korean Females' Sexual Dysfunction

윤혜영¹⁾, 이준영²⁾, 문두건³⁾, 김제종³⁾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의 성기능장애 유병율을 파악하고 성 인지도와 그 특성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성기능장애 정도의 파악 및 치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후 진단과 치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4년 3월30일까지 20주간 시행되었다. 성기능 평가 한글판 척도인 FSFI를 포함한 설문지 1,043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비교적 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진 93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기능장애 인식여부에 따른 분류인 인지장애, 비인지장애 여부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인지도, 성기능 평가문항 등이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결과, 첫째, 인지 장애군은 21.5%, 비인지 장애군은 24.6%로 여성 성기능 장애의 유병율은 46.1%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장애군은 성 인지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인지장애군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성기능이나 성생활에 문제는 있으나 치료할 의사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여성이 성 문제를 거론하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지장애군은 성적욕구, 성적흥분, 절정감, 성교통, 윤활액, 만족감 순으로 장애를 보였고, 비인지장애군에서도 성적흥분, 성적욕구, 절정감, 성교통, 만족감 순으로 장애를 보여 양군 모두 성 각성장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기능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는 성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보통(OR=2.64) 또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OR=10.03), 흡연자(OR=2.76), 그리고 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경우(OR=2.12) 등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비인지장애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대화여부, 종교 및 성에 대한 태도 등이 정상군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 한국 여성 성기능장애의 유병율은 46.1%였으며, 성 인지도에 대해 인지장애군은 부정적, 비인지장애군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성기능 장애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흡연, 대화여부, 상대방의 태도, 결혼기간, 출산횟수, 성에 대한 태도, 성 만족도

KSPM-101

자궁경부암과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Polymorphism C677T

The Effect of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 Polymorphism C677T on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설재웅¹⁾, 지선하²⁾, 이상욱³⁾, 신해림⁴⁾, 박종섭⁵⁾, 오희철⁶⁾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소,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국립암센터, (5) 가톨릭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THFR polymorphism C677T on cervical carcinogenesis.

방법: The study subjects were patients who were pathologically diagnosed with cervical neoplasia and who had a positive result for human papillomavirus (N = 645), and they were compared to normal healthy women as normal controls (N= 702). The genetic susceptibility of the MTHFR gene (1p36) in cervical carcinogenesis was determined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gene and environmental factors vs. the different stages of cervical intraepithelial lesions and the invasive cervical cancers.

결과: On assessing MTHFR polymorphisms, the percentages of individuals homozygous for the C allele, homozygous for the T allele and heterozygous for these two alleles were 32.6%, 19.2, and 48.2%, respectively, in the control group. The corresponding figures were 29.9%, 21.4%, and 48.7%, respectively, among in women with cervical cancer. Compared with MTHFR C/C, the odds ratio (at a 95% confidence interval) for MTHFR T/T was 1.5 (0.9?2.4) for invasive cervical cancer and 1.3 (0.8?2.3)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II or III. The risks for invasive cervical cancer were higher with early onset cervical carcinogenesis (2.1, 1.0?4.3), than with late onset (1.2, 0.7?2.2). The risks of MTHFR T/T or C/ T also increased for women with an early age of first intercourse or for women with two or more children, as compared with MTHFR C/C.

결론: Polymorphisms of MTHFR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de-

등이었다. 특히 성생활의 만족도는 낮으나 치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여성이 성문제에 대해 거론하기를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여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 및 진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SPM-111

한국인의 원위 요골 및 종골 골밀도 연령곡선

Age Curves of Bone Mineral Density at the Distal Radius and Calcaneus in Koreans

민진영¹⁾, 민경복¹⁾, 백도명¹⁾, 조성일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Objectives: Osteoporosis is a major health problem characterized by reduction in bone mass and micro-architectural deterioration in bone tissue resulting in fractures. Establishing reference bone mineral density (BMD) values is crucial for monitoring bone density in Korean population. In this paper, we report the age curves of BMD among subjects with wide age range, and identify the average peak bone mass values.

Methods: A total of 1279 subjects (700 females and 579 males) aged 2-86 years were recruited from a rural area in Korea. Subjects were excluded if they had any history of bone disease or were taking any drugs known to affect bone metabolism or calcium homeostasis. BMD of the distal radius and calcaneus were measured on both sides by DEXA using Lunar PIXI densitometer. Regression analysis with spline smoothing was used to estimate the timing of peak bone mass and trends with age.

Results: Peak BMD of the distal radius was reached at age 35 in females and age 39 in males. Peak BMD of the calcaneus was reached at age 31 in females and age 33 in males. The peak values were respectively 0.49, 0.59, 0.55, 0.60 g/cm². Right side tended to have slightly higher BMD values, but the differences were very small.

Conclusion: BMD increases with age until the peak value is reached at age between 31-39, and then decreases with age. Males reach the peak later with higher values compared to females. BMD at the calcaneus reaches the peak earlier with a higher value compared to BMD at the distal radius.

KSPM-114

추적관찰을 통한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 시작과 동료 흡연과의 관련성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initiation and peer smoking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one year follow up study

박순우¹⁾, 박정환¹⁾, 이상원¹⁾, 김종연¹⁾

(1)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일반적으로 흡연하는 친구를 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흡연 친구 유무와 흡연과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추적관찰을 통해 청소년에게서 친구 흡연이 흡연 시작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대구시 소재 1개 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남학생 590 명에 대하여 2003년도 5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하였다. 추적 조사된 530명(추적을 89.8%)중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흡연 경험 유무와 시기 등에 대한 응답이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123명을 제외한 407명(1차 조사자의 69.0%)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흡연시작군은 1차 조사 당시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이후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운 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동료 흡연은 가장 친한 친구 5명중 흡연을 하는 친구수로 질문하였으며, 그 외에 또래 남학생들에 대한 추정흡연율, 동료 흡연에 대한 이미지, 흡연의도, 자기효능감, 부모 및 형제 흡연 여부,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 부모 학력, 부모 결혼 여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종교, 학교성적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PC 11.5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하였다.

결과: 1차 조사시 흡연경험이 전혀 없었던 222명 중 그 후 1년 동안 흡연을 경험한 경우는 25명(11.3%)이었다. 흡연을 시작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1차 조사시의 흡연 친구 수와 동료흡연을 추정치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조사시에는 흡연을 시작한 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 친구수가 유의하게 많아 졌으며($p<0.001$), 동료흡연을 추정치도 흡연을 시작한 군이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1$). 한편 1차 조사시 흡연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215명 중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거나 한 개비라도 제대로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가 추적조사에서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흡연 친구수가 유의하게 많아졌다($p<0.001$). 단변량 분석을 통해 흡연 시작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변수로서 다른 학생들의 흡연 모습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경우($p<0.01$), 아버지가 없는 경우($p<0.01$),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p<0.05$),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p<0.05$), 어머니 학력이 낮은 경우($p<0.05$)에 흡연 시작을 많이 하였으며, 금연 의도가 약한 경우, 자기효능감이 약한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성적이 낮은 경우에 경계선 유의수준에서 흡연 시작을 많이 하였다($0.05<p<0.1$).

결론: 본 연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흡연 친구나 동료 흡연을 추정치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거의 흡연 경험이 흡연 친구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시작의 행동학적 기전이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집단과 좀 더 큰 규모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KSPM-127

폐경 전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Affecting factors of osteoporosis among pre and postmenopausal women